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우리 장군님

6년이 흘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차우환지도 어버이 창군님을 잊고 산책 없는 그 날과 달들은 수령영생의 역사가 이 나라 강토에 새기고 온 세상에 떨친 나날이었다.

존엄높은 주체국가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사람들이여, 위대한 강국의 존엄을 만방에 표시해주는 5천년민족사에 뚜기할 사변들과 행복의 열매들이 날로 주렁지는 이 땅의 방방곡곡을 머들어 보시라.

우리의 가슴에 한껏 채워지는 코나 군민족적정지와 자부심, 더 밝은 폐일에 대비한 최망, 그 모든 것을 우리 창군님의 헌신과 표고로 떠나 어제 생각할 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나의 심장속에, 우리 인민군인들과 민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습니다.』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창군님은 태양이시다.

우리 조국땅에 솟아난 모든 창조물들은 위대한 창군님의 애국역적에 뿌리를 두었고 그이께서 끊으신 고생과 맛바꾼 애국유산이다.

얼마나 많은 헌신의 땀을 끈으셨고 얼마나 많은 만부의 씨앗들을 뿌리시었던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에 자신의 행운을 거두며 뿌려주었던 우리 창군님이시다.

그이의 한생이 얼마나 고결하고 저rophe하며 위대한 자우를 우리 인민은 지난 6년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이 땅에서 절체절명부신 경계의 모습, 무진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펼치는 우리 조국의 존엄과 지위는 위대한 창군님께서 지니시었던 숭고한 애국념원을 끊임없이 전해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나여 주신 내 나라, 내 조국은 더욱 아름답게 꽂피워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무엇을 하나 해도 조국의 힘을 한다.

혁명이 거룩히 흐르면 혁명가들은 그 뿐 아니라, 위대한 창군님의 거문이 어떤 힘에도 끌려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나 한다는 것이 위대한 창군님의 승고한 힘이다.

하기에 가시는 곳마다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불글의 정신력을

을 심어주시고 기적과 혁신의 물결을 안겨주었으며 비약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만부의 씨앗을 뿌려시였다.

인민이 겪는 어려움을 두고 누구보다 깨어서 살피고는 거운 노래를 미울을 부르시며 국력강화의 길우에 퇴행적인

현신과 표고의 자주를 끌어내고 이걸

마음으로 일군과 민족을 확장하고 이걸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투철한 자세와 립장이 기본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둘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헌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열광속에서 당조직들의 전투력 더 높아진

운에 봄, 새로 일영되어 군에 어려운 배수선집계원들의 현지지도자적부리 빠져깊이 새긴 길진산군당위원회는 전사사업을 새로운 높이에서 설계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군에서 이미 내새우고 추진하는 목표들이 대개 통원적이었다.

황주중동학원건설, 어린이교통공원건설, 원곡국수집개전봉사...

하지만 일부 목표들은 당차례 세워지지 못하였다.

평도업적단위인 군당학교부리가 대표적이었다.

구내포장공사가 적전되어 전적되었는데 그것만으로는 학교의 면모를 용당한 수준에서 일신시키기가 곤란하였다.

그대로 두번 군당학교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들을수는 있었어도 군당학교를 잘 꾸밀 때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충족해 말들이나간다고 몇몇이 말할수 없을것이었다.

이외에도 가슴이 후련하게 새

이 파시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서 관찰적인 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황주군당위원회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서 큰걸음을 내짚었다.

주목되는 점은 어려운 지역에 있는가, 당책임일군은 애초에 먹은 마음을 달리할 수 없었다.

그에 대해 축면별로 보자.

전투목표

워지지 못한 목표들이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본의해보니 물론 어려운 조건들은 있었다.

그러나 당책임일군은 애초에 먹은 마음을 달리할 수 없었다.

유훈관철전에서 그 어떤 불의한 조건이 문제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판점과 대도가 바로서면 해결책이 나진다. 우리 일군들의 어깨에 유훈관철의 운명이 지워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는 일군들의 심장을 이렇게 두드렸다.

한번으로는 실천을 통해 그들을 이끌었다.

당책임일군은 먼저 군당학교부리기기를 통해 일군들을 향상시켰다.

해당 일군들과 함께 현지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에 방도를 러시면서 일군들을 위한 사업을 앞장에서 풀어주도록 하였다.

실력을 유훈관철의 확고한 터보이며 높은 실력이 일관성될 때만이 유훈관철의 지름길로 끌리며 달릴수 있다는것이 진진설득원장의 주장이다.

우선 그는 일군들이 깊은 사색과 연구를 암발휘하여 유훈관철과 관련한 조치정책사업을 철학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일군들은 일군들대로 일할 땅이 되어 새우도록 하였다.

그렇게 되니 무엇이 좋았는가.

절세위인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꽂피우는 길에 충정을 바쳐가리

무엇이나 만들어내는 힘 있는 집단

평양방직기계공장 단조직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평양이 린이식로 풍광장에 가보셨습니까? 평양방직공장에는 그 공장들의 운반, 철단설비들이 바로 우리 단조직장 동무들이 기술자들과 힘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통행한 평양방직기계공장 일군이 자랑심이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직기생산과 수리에 필요한 소재들을 생산하는 단위에서 그 뛰어난 혁신적인 설비들을 만들더니!?)

이런 의문은 얼마후 단조직장에 가서나니 비로소 풀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자기장민의 정신을 가져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끊임없이 넘나들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루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설비들의 동을 높은 제작률과 품질로 공장에서 단조직장 직장장 영업집동무를 만났다.

알고보니 그는 염마진까지 공장의 공구직장에서 일하였는데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미사대회에 참가하여 토론까지 한 오연당현이었다.

선자리에서 설비들의 특성과 로동자들의 기능에 따라 필요한

작업시자들을 막침없이 주는 그 를 보니며 단조직장이 계단 군인이며 공운기체제작공이라고 하면 공장일군의 말이 다시금 귀전에 흘러왔다.

올해에 직장이 수시로 세기되 는 소재생산공장을 수령하면서 중요대상설비들을 출동시켜 만들 어내어 수도의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에 직무 이미지한데는 그의 노력이 크게 것들었다.

우리의 힘으로 영광의 일리를 빛내이자!

그가 총영원들에게 놀 하는 이 말은 곧 그의 삶의 좌우명이기도 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남부령지 않은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풍랑에 세게 가진 그 혼신과 무드심을 달이고 영광공장으로 달려온 제4군인당원들이 서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목표했던 날까지 설비조립을 끝내고 온 공장에 지켜보는 가운데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그때 시운전이 시작되어 얼마 후 불시에 음직이던 기계가 멈춰 조종석의 신호등들이 일제히 깨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시운전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어떻게 둘 일인가? 설비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하지만 조종판에서 음쪽 일어서는 영광길동무의 기색은 레

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면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 우리 가 결코 남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달라붙을 시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연신작업반장 려성수, 단조작업반 선동원에게는 행복한 용법으로 다가온 영광길동무는 한부분을 기억시키 그것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면 된다고 신심 있게 말하였다.

온 직장이 한마음으로 되어 설비제작장에 진입하였다. 날에 방을 이어 계단된 그 전후의 일장에는 어느 때나 그러하듯 수십년 전 위대한 수령님의 부드심을 달이고 영광공장을 달려온 제4군인당원들이 서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목표했던 날까지 설비조립을 끝내고 온 공장에 지켜보는 가운데 시운전을 시작하였다.

그때 시운전이 시작되어 얼마 후 불시에 음직이던 기계가 멈춰 조종석의 신호등들이 일제히 깨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시운전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어떻게 둘 일인가? 설비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하지만 조종판에서 음쪽 일에서 영광길동무의 기색은 레

연하였다. 그려는 그에게 공장의 힘, 우리의 기술이면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다. 우리 가 결코 남지 않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달라붙을 시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었다.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모시고 장군님의 유물을 심장에 간직하고 시현과 난관속에서도 창조의 풍음을 멀리하지 않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

창조의 동력에 바친

순천기관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모시고 장군님의 유물을 심장에 간직하고 시현과 난관속에서도 창조의 풍음을 멀리하지 않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을 다시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었다.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모시고 장군님의 유물을 심장에 간직하고 시현과 난관속에서도 창조의 풍음을 멀리하지 않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

계급을 다시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언제나 국가과학원의 한 일군이 단조직장에서 만든 어느 기계설비를 보게 될지도 있다.

<p

조국과 민족앞에 쓰으신 불멸의 업적 천세만세 길이 빛나리

자주통일위업에 바치신 고귀한 한생

지구를 뒤흔드는 폭대 사변들로 주체 조선의 강대성을 힘있게 파시해온 궁지 높은 현해를 들여써보는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걸친 그리움이 마도쳐오고 있다. 이 땅우에 세계가 무리워하는 존엄을 강국을 일깨우시고 온 세계가 통일된 강토에서 복락을 누려갈 그날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물같은 천민의 기적소리를 울려가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 이해의 눈부신 성과들을 보여드릴수 없는 암타까움에 젖어있는 우리 인민들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오늘 우리 인민들이 이룩해가는 경이적인 사변들은 무강조국건설과 자주통일 위업실현의 출발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도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제통일로선을 관찰하기 위한 우리 당의 부정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직적인 행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벌여있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골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승연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우리의 눈 앞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세상이 환하고 도록 밝게 웃으시는 자애로운 영상이 틈틈히 어려운 그, 인자하신 미소로 인민의 선민가지 기쁨과 행복을 살피며 우시고 그 밝은 미소로 역사의 모진 풍물을 물어내시었으며 그 불리는 미소로 수십년동안 푸르게 엎어붙였던 문화의 토대를 누리며 자주통일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천진 온거제가 순간도 떨어져 살수 없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 앞에서 자신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무강하게 함께 계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친구가 허우를 주시고 조국통일의 대봉로를 미련으로 헤어져온 그, 나날에는 밀고 험한 전선길을 족감과 웨기밥으로 이어가신 눈물과 사연도 있고 최전선에서 첫새벽을 남면서도 헤어져온 그, 나날에는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턱질한 정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마침내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의 헌법과 강의한 통일에 국의 신념으로 역사의 모진 광물을 깊이이며 회를 풀고, 역사의 행도마다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직한 행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마침내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3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4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5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6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7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8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9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0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1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2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3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4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5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6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7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8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19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0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1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2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3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4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5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6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7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8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29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30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31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32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33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34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고 밤에 풍물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조국통일을 생각하여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통일에 대한 꿈에도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일어제기로 구상을 투르히시면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제8 85(1996)년 11월 24일

제35의 헌법과 고려민주평방문화를 열 때에도 조국통일을